

석사학위논문

기독교 창작 무용
「The Healing」에 대한 연구

2024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기 독 무 용 전 공

한 영 실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영애

기독교 창작 무용
「The Healing」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hristian Creative Dance
「The Healing」

202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기독교 무용 전공

한영실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영애

기독교 창작 무용
「The Healing」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hristian Creative Dance
「The Healing」

위 논문을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기독교 무용 전공

한영실

한영실의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3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안 신 희 (인)

심 사 위 원 김 남 용 (인)

심 사 위 원 박 영 애 (인)

국 문 초 록

기독교 창작 무용 「The Healing」에 대한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기 독 무 용 전 공
한 영 실

본 논문은 기독교 창작 무용 「The Healing」에 대한 연구이다.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PM 7:00에 양재동 M극장에서 공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독교적 치유를 주제로 표현한 기독교 창작 무용 작품 「The Healing」을 분석한 논문이다. 본 연구자는 삶과 경험의 바탕을 무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장르로 준비 하였고, 이를 통해 복음으로 사용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2000년 전 성서 속 막달라 마리아의 질병은 정신병의 일종으로 질병의 고통과 어둠속에 있었지만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치유 받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인물이었다. 본 연구자 또한 현 시대에 그녀와 동일한 질병으로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 받고 새롭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작품의 안무와 움직임 구성에 있어서 또한 감정표현을 과거의 삶에서 느꼈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던 시간의 경험들이 잘 표현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성서에서 의미

하는 예수님의 치유사역과 막달라 마리아의 시대적 배경과 그녀의 삶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또한 공연한 동영상의 바탕으로 분석하였고, 그 밖에 문헌연구도 포함하였다. 기독교 창작 무용 작품 「The Healing」은 한 영혼이 질병과 고통의 어둠속에 살아가지만 인간의 나약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적인 전인적 치유를 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치유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본 작품은 총 3장의 구성으로 무용 외에 연극적인 요소, 대사, 성악 등 다양한 요소들을 조합하여 구성한 종합예술로서의 표현한 공연 작품이다. 또한 장이 바뀔 때 마다 음악의 전환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강조점을 나타내기 위해 무대조명을 사용하였다. 영상미디어를 사용하여 무용수의 상황을 관객들에게 이해도를 높였다. 1장에서의 시작은 오브제인 시든 꽃의 탐 조명과 “내 몸과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무용수의 대사가 관객들에게 상황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선을 집중시켰다. 막달라 마리아가 질병의 고통과 어둠속에서 헤매는 상황을 무용수의 무겁고 낮은 자세의 움직임과 슬프고 괴로운 얼굴표정의 감정으로 표현했다. 2장은 막달라 마리아가 어둠속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나약한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된다. 회개 눈물로 예수님을 통해 치유 받고 변화되는 과정을 흰 천(세마포)과 탐 조명을 사용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여 표현하였다. 마지막 3장은 치유된 막달라 마리아가 회복되어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활짝 핀 꽃(기쁨)과 해가 떠오르는 일출(희망)의 영상을 사용하였고 시든 꽃과 활짝 핀 꽃으로 대조적인 상황을 표현하였다. 본연구자는 오늘날 질병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되어 회복된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주요어】 기독교 창작 무용, 고통, 회개, 치유, 소망, 구원.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3
II. 이론적 배경	4
2.1 예수님의 치유사역	4
2.1.1 신체적 접촉을 통한 치유	4
2.1.2 선포를 통한 치유	5
2.1.3 죄의 용서하심을 통한 치유	8
2.1.4 행동과 말씀을 통한 치유	8
2.1.5 믿음을 통한 치유	9
2.2 막달라 마리아의 질병과 치유	10
2.2.1 막달라 마리아의 질병	12
2.2.2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	13
2.2.3 막달라 마리아의 사역	14
III. 연구작품의 개요	16
3.1 안무의도 및 작품내용	16
3.1.1 안무 의도	16
3.1.2 작품내용	17
3.2 작품의 형식 및 구조	18
3.3 작품의 구성요소 및 표현 매체	20
3.3.1 오브제	20
3.3.2 소품	21
3.3.3 의상	22
3.3.4 음악	24

3.3.5 영상	25
3.3.6 조명	25
IV. 연구작품의 분석	27
4.1 장면 구성 및 움직임	27
4.2 1장: 어둠속에서	28
4.2.1 내용 및 안무 의도	28
4.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28
4.2.3 조명	34
4.2.4 음악	36
4.2.5 영상	36
4.3 2장: 예수님과 만남, 치유	37
4.3.1 내용 및 안무 의도	37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37
4.3.3 조명	41
4.3.4 음악	42
4.4 3장: 회복의 기쁨과 소망	43
4.4.1 내용 및 안무 의도	43
4.4.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44
4.4.3 조명	46
4.4.4 음악	47
4.4.5 영상	47
V. 결 론	48
참 고 문 헌	50
부 록	52
ABSTRACT	54

표 목 차

[표 2-1]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성경구절(개역개정)	11
[표 3-1] 작품의 구조	19
[표 3-2] 의상 구성	23
[표 4-1] 프로시니엄 무대(Proscenium arch Stage) 구역 구분	27
[표 4-2] 기호 및 동선표지 색	27

그 립 목 차

[그림 3-1] 오브제의 상징적 의미	20
[그림 3-2] 꽃	21
[그림 3-3] 무용수 1 의상	23
[그림 3-4] 무용수 2 의상	23
[그림 4-1] (대사) 내 몸과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	28
[그림 4-2] 동선 1	28
[그림 4-3] 죽어가고 있는 영혼	29
[그림 4-4] 동선 2	29
[그림 4-5]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함	29
[그림 4-6] 동선 3	29
[그림 4-7] 땅을 향해 내려놓음	30
[그림 4-8] 동선 4	30
[그림 4-9] 하늘을 향한 간절함	30
[그림 4-10] 동선 5	30
[그림 4-11] 몸을 팔에 기댈 정도의 괴로움	31
[그림 4-12] 동선 6	31
[그림 4-13] 다리를 의지하여 기댈 정도의 고통	31
[그림 4-14] 동선 7	31
[그림 4-15] 죄를 자복	32
[그림 4-16] 동선 8	32
[그림 4-17] 회개的眼물	33
[그림 4-18] 동선 9	33
[그림 4-19] 흰 천(세마포), 예수님	33
[그림 4-20] 동선 10	33
[그림 4-21] 조명 1	34
[그림 4-22] 조명 2	35
[그림 4-23] 조명 3	35

[그림 4-24] 하나님의 음성	37
[그림 4-25] 동선 11	37
[그림 4-26] 치유해준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	38
[그림 4-27] 동선 12	38
[그림 4-28] 공허함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고백	39
[그림 4-29] 동선 13	39
[그림 4-30] 늘 기도해 주셨던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	39
[그림 4-31] 동선 14	39
[그림 4-32]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경배	40
[그림 4-33] 동선 15	40
[그림 4-34] 늘 보호해 주신 예수님	40
[그림 4-35] 동선 16	40
[그림 4-36] 세상 끝날 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	41
[그림 4-37] 동선 17	41
[그림 4-38] 조명 4	42
[그림 4-39] 조명 5	42
[그림 4-40] 흰 꽃(순결), 흰 꽃에 매인 붉은 천(예수님 보혈)	44
[그림 4-41] 동선 18	44
[그림 4-42] 치유와 회복의 기쁨	45
[그림 4-43] 동선 19	45
[그림 4-44] 오브제의 상징, 시든 꽃 회상	45
[그림 4-45] 동선 20	45
[그림 4-46]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께 감사	46
[그림 4-47] 동선 21	46
[그림 4-48] 조명 6	46
[그림 4-49] 조명 7	47

I.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 시대는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삶이 보다 편리하게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지만 오히려 그 문명 속에서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불안증, 강박증, 수면장애, 두통, 만성피로와 같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질병에 시달리며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 청소년들의 취업난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젊은 세대는 물론 기성세대 등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긴장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다양하고 복잡한 조직체가 형성되면서 그 속에서 사람과 사람간의 갈등과 스트레스로 인해 병명조차도 모르는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인간의 능력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초래한다.

특히 정신장애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 문화적 요인의 복잡한 상호관계의 결과로서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가족,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문제로 까지 인식되어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¹⁾ 이러한 현상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불고 있는 “힐링(Healing) 열풍”도 그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출판계, 방송계를 비롯하여 “힐링”이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힐링 열풍”이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압축 성장으로 경제는 발전했지만 무한경쟁 속에서 한국인들의 마음은 피곤하고 지쳐 있는 상태이다. 무엇보다도 경쟁에서 실패하면 낙오자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과 고립감으로 시달리고 있는 심리상태가 힐링 열풍을 낳았다.”²⁾ 가슴 아픈 분석을 하였다. 이에 따라 세대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힘들고 불안한 이 시대에 삶의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면 질병과 불안감의 어둠에서 벗어나 자유함과 회복의 탄력성이 일어나

1) 김명숙. (2000). 「무용요법이 정신분열증 환자의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논문집. 제1권. p.156.

2) 이찬수. (2013). 「처음마음」. 서울: 규장, p.19.

는 치유의 역사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치유란 건강이나 건전함을 회복하고 바로 잡거나 건강을 회복하다는 의미에서 ‘치료, 고침, 회복, 원상 복구, 완쾌, 관리 회복, 승소, 병이 차차 나아감’의 뜻이 있고 문자적인 상징적 의미는 ‘온전함’이다.³⁾ 기독교적인 치유의 개념은 속사람이 치유되어야 한다. 상한 감정들도 회복이 되어야 하며 자기 안에 상처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의 눈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치유를 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해서만 전인적 치유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자신의 간증과 연관된 주제를 찾기 위해, 성서 속에서 인물을 찾던 중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Mary Magdalene)(요 8:2)라는 인물을 주제로 선정하여 기독교적 창작 무용으로 안무하였다. 「The Healing」은 누가복음 8: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성서 말씀에 근거하면 막달라 마리아의 질병은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학으로는 쉽지 않은 분야인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독교적 치유가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막달라 마리아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 받았다. 본 연구자 또한 현시대에 동일한 질병으로 인해 고통과 어둠속에서 있었지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성령을 통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경험을 하였다. 과거의 그 경험을 토대로 「The Healing」의 안무와 예술적으로 표현하는데 공감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은혜는 우리의 주변 환경 속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 기적과도 같은 치유의 역사가 병 고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 받은 증인으로써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땅 끝까지 전하라는 말씀을 잘 지켜 증거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본 논문은 기독교 창작 무용 「The Healing」에 대한 연구이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이 질병의 고통과 어둠속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하므로 치유 받고 회복되어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간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현 시대에 자유하지 못하고 어둠속에 갇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다. 박영애(2023)는 “앙망(예배)” 한다는 뜻에는 치유 받고 새 힘을 얻게 된다는

3) 이성호, (1983). 「성구대사전」. 서울: 해문사, p.1401.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영혼 육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춤으로 예배드릴 때 치유가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⁴⁾ 이에 따라 질병과 고통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은혜와 영성을 겸비한 기독교적 무용의 안무자와 사역자들이 더욱더 활성화 되어 온전한 예배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기독교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독교적 무용이 예배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복음적 연결통로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작품은 2023년 11월 20일 PM 7:00 양재동 M극장에서 공연된 기독교 창작 무용 작품 「The Healing」에 대한 분석 연구이다. 본 작품 「The Healing」은 기독교적 치유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형식과 내용에 관련된 춤의 구성을 분석했다. 연구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동영상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밖에 학위논문, 단행본, 성서, 인터넷 사이트 등 문헌연구와 함께 하였다.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I 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II 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먼저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대해 알아보았다. 「The Healing」의 주된 인물인 막달라 마리아의 치유가 예수님 그 시대의 이루어졌으므로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알아보았는데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4복음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았다. 둘째로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주된 인물인 그녀의 삶과 예수님을 통해 치유된 과정이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III 장에서는 기독교 창작 무용 작품 「The Healing」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안무의도 및 작품내용, 작품형식 및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작품구성요소 및 표현매체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IV 장에서는 연구작품의 분석에서 각 장면구성 및 움직임과 무대표현 매체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V 장 결론에서는 본 작품 「The Healing」의 연구과정과 내용, 느낀 점과 기대 효과에 대해 서술하였다.

4) 박영애. (2023). 「기독교 무용을 위한 실제」. 서울:(주)내일이비즈, p.40.

Ⅱ. 이론적 배경

2.1 예수님의 치유사역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4복음서에 1/5를 차지할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⁵⁾ 큰 능력으로 질병과 죄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 기독교 창작 무용 작품 「The Healing」의 주된 인물인 막달라 마리아도 정신병의 일종으로 귀신들려 질병의 고통과 어둠속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의 은혜를 받았다. 치유된 자만이 기쁨과 소망이 있고 그로 인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 다니며 제자로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 증거하는 사명의 길을 간다. 이에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전인적 치유를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유형을 4복음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하였다.

2.1.1 신체적 접촉을 통한 치유

○ 맹인 치유(마 9:27-31)⁶⁾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맹인이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따라오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물어보았다. 소경들은 “그리하오이다” 대답했다. 그때 예수께서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졌다.

○ 나병환자 치유(마8:1-4)⁷⁾

5) 강덕구. (2012).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사역 연구.” 석사학위청구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p.18.

6)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1998). 서울: 대한성서공회, 마 9:27-31.

7) 상계서, 마 8:1-4.

한 나병환자가 나아와 예수께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나병환자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이 깨끗함을 받았다.

2.1.2 선포를 통한 치유

○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요 4:46-54)⁸⁾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 함을 들은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종들이 살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 벧세다의 소경 치유 (막 8:22-26)⁹⁾

예루살렘에 베테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서른여덟 해 된 병자가 있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와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 회당 안의 귀신들린 자 치유(눅 4:31-36, 막1:21-28)¹⁰⁾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오셔서 유대의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음이다. 그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8)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1998). 서울: 대한성서공회, 요 4:46-54.

9) 상계서, 막 8:22-26.

10) 상계서, 눅 4:31-36, 막1:21-28.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였다. 모두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 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졌다.

○ 가다라 지방의 군대 귀신들린 자 치유(마 8:28-34, 막 5:1-20)¹¹⁾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였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다.

○ 귀신들려 간질 하는 자 치유(마 17:14-21, 막 9:14-29)¹²⁾

한 여인이 예수께로 와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짐으로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으나 그들이 고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말씀하였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 때부터 나왔다.

○ 귀신들려 눈멀고 병어리 된 자 치유(마 12:22-24, 눅 11:14)¹³⁾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옴으로 고쳐 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말하기를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11) 전계서, 마 8:28-34, 막 5:1-20.

12) 전계서, 마 17:14-21, 막 9:14-29.

13) 전계서, 마 12:22-24, 눅 11:14.

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다.

○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치유(마 15:21-28, 막 7:24-30)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예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 죽은 나사로 치유(요 11:43-44)¹⁴⁾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는 지 이미 나흘이었다. 그로 인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다.

○ 회당장 아이로의 딸 치유(막 5:35, 눅 8:49-56)¹⁵⁾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시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

14) 전계서, 요 11:43-44.

15) 전계서, 막 5:35, 눅 8:49-56.

○ 나인성 과부의 아들 치유(눅 7:11-17)¹⁶⁾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었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다. 예수께서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다. 이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다.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2.1.3 죄의 용서하심을 통한 치유

○ 중풍병자의 죄 용서 치유(막 2:1-12, 눅 5: 17-26)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은 이유로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 그때 그들은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다.

2.1.4 행동과 말씀을 통한 치유

○ 나면서부터 맹인 된 자 치유(요 9:1-12)¹⁷⁾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이 되었다.

16) 전계서, 눅 7:11-17.

17) 전계서, 요 9:1-12.

○ 귀먹고 어눌한 자 치유(막 7:31-37)¹⁸⁾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예수께서는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

○ 한편 손 마른 자 치유(마 12:10, 막 3:1-6, 눅 6:6)¹⁹⁾

유대의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다.

2.1.5 믿음을 통한 치유

○ 혈루증을 앓던 여인 치유(마 9:20-22, 막 5:25)²⁰⁾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겹옷 자락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겹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

○ 백부장의 하인 치유(마 8:5-13)²¹⁾

예수께로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니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하셨다.

18) 전계서, 막 7:31-37.

19) 전계서, 마 12:10, 막 3:1-6, 눅 6:6.

20) 전계서, 마 9:20-22, 막 5:25.

21) 전계서, 마 8:5-13.

그때 백부장이 말하기를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왔다.

○ 맹인 치유

- 맹인 바디매오 치유(막 10:46-52)²²⁾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였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불렀다.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겹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예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 한 맹인 치유(눅 18:35-43)²³⁾

예수님께서 예리고에 가셨을때 한 맹인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두 번 외쳤다. 앞서가는 자들이 잠잠히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더 간절했다. 그때 예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곧 치유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르는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찬양했다.

2.2 막달라 마리아의 질병과 치유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 참 고통과 어둠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런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시대의 인물이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참 교훈이 되며 기독교 창작 무용 「The Healing」의 주제 인물로써 작품의 이해를

22) 전계서, 막 10:46-52.

23) 전계서, 눅 18:35-43.

돕기 위해 치유전과 후의 과정들을 알아보았다. 정경에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언급은 각 복음서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3회, 마가복음에서 4회, 누가복음 2회, 요한복음 3회 총 12회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언급된다. 각 복음서 마다 조금씩 다르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으므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한다.²⁴⁾

[표 2-1]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성경구절(개역개정)

마태복음 27장56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마태복음 27장61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마태복음 28장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마가복음 15장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마가복음 15장47절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마가복음 16장1절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마가복음 16장9절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누가복음 8장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누가복음 24장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요한복음 19장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요한복음 20장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요한복음 20장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24) 하혜승. (2010). “영지주의 문헌들에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p.4.

2.2.1 막달라 마리아의 질병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북서쪽 연안 도시인 디베라의 북쪽 5km 지점에 위치한 성읍(눅 8:2)으로 토기 제작, 염색 공업, 수산물 가공 등의 산업이 발달한 갈릴리 연안 4대 도시 중 하나다. 특히 이곳에서 가공된 물고기 절임은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과 멀리 있는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로마 등지로까지 수출되었다. 예수님의 신실한 여제자 중 한 사람인 마리아도 이곳 출신이다(마 27:56, 막 15:40, 눅 8:2, 요 19:25).²⁵⁾ 또한 이 지역은 선박업 무역의 중심지로서 부요한 도시였고 게다가 수도시설과 운동경기장을 갖춘 헬레니즘화 된 도시였다. 그러므로 후에 랍비들은 이 도시의 몰락은 음탕과 방탕 때문이라고 보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평판이 나빴다.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할 때 그녀의 출신지역을 밝히고 있었으므로 막달라 지역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오해를 받아왔다.²⁶⁾ 막달라 마리아가 타락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정경은 어디에도 없다. 그녀는 이스라엘 남부 유다지방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나사로’와 ‘마르다’가 그녀의 형제이고 그녀는 막내였다. 마르다의 권유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장소에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회개와 징벌에 대해 말씀하시며 군중들에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을 가르치실 때는 동요하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옛날 생활로 되돌아갔고 그녀 안에는 이미 더러운 일곱 귀신이 들어와 있었다.²⁷⁾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그 지역을 통치하던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억압과 고통을 당했는데 남성들보다 여성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처지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더욱 고통스럽고 암울할 수밖에 없었다.²⁸⁾ 누가복음 11장 24-26절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매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일곱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질병으

25) 라이프성경사전. <https://m.blog.naver.com/yejihanja/220803993539>

26) 잭 피니건. (1998). 「신약 성서의 고고학」. (남대극, 역). 서울: 민음사, pp.156-162.

27) <https://blog.naver.com/holyserv/140055134656>

28) 최영실. (1996).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 「기독교 사상」. 40(7): 100-101

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정신병이나, 우울증, 또는 간질병을 가진 자를 의미하며 해석 할 수가 있다. 또한 일곱이라는 숫자를 통해 완전히 귀신 들자 자 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²⁹⁾ 또한 일곱이라는 숫자는 아주 심각한 최악의 상태이며 재발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주인을 배척한 포도원 소작인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되찾은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막달라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와 거룩한 귀족부인 ‘베로니카’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하여 염려하자 예수님은 ‘잃어버린 진주’로 비유하시면서 그녀는 놀이판에서 잃어버린 많은 진주보다 더 값진 진주이므로 드라크마를 되찾은 여인보다도,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목자보다도 더 부지런히 그녀를 되찾으라고 당부하셨다.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가 끝난 직후에 ‘그녀에게 이미 구원의 불이 내려졌다’고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³⁰⁾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계획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2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

일곱 귀신 들려 고통과 어둠속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치유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중요한 치유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복음서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는 악령이 들어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녀를 치유하고 악령에서 해방시켜 준다(요 8:2).³¹⁾ 가장 널리 알려진 것 중 하나는 회개한 죄인으로써 그녀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치유 과정은 그녀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녀에게 큰 감격과 감사함을 주었다. 그녀는 구원을 받은 뒤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듣고 수용한 모습이 성서에 잘 나타난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그녀가 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29) 이성희. (1996). 「예수님을 만난 여성들」. 서울: 두란노, p.32.

30) <https://blog.naver.com/holyserv/140055134656>

31)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1998). 서울: 대한성서공회. 요 8:2.

가르침을 듣고 있음이 언급되어 있다(눅10:39). 또한 몇 번의 기록에서 그녀는 예수와 함께 다니며 그를 섬기는 모습이 나타난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여러 여성들과 함께 예수님께 수고를 드리며 다니는 것이 언급되어 있다.³²⁾ 성서 본문에서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는 요안나와 수산나를 비롯한 다른 많은 여성들과 함께 예수와 그의 제자를 따르며 자신들의 재정과 행위로 복음사역을 도와주었던 여인이다(요 8:2-3)³³⁾. 성서에 “다른 여인들이 많이 있었다.” 라고 기록했듯이 그들의 모임 규모가 적지 않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들은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거나 예수님의 돌봄에 힘입어 혜택을 받은 자들이라 할 수 있고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였다고 볼 수 있다.³⁴⁾ 당시 유대사회의 관습에 의하면, 여자가 집을 나가서 남자들과 함께 숙식을 하고 따라다니는 행위는 커다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집안에서 남편과 시댁을 수종하는 것이 여성의 미덕이었고 당연한 삶의 형태였기 때문이다.³⁵⁾

2.2.3 막달라 마리아의 사역

막달라 마리아의 기록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되어 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들림의 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에게 헌신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장을 목격하고 큰 슬픔에 잠겼다. 그 후에 그의 시체를 돌보고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였다³⁶⁾(요 21:1; 11-13).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여인들은 도망친 열두 제자들과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열두 제자들보다 더 제자도의 모범이라 할 수 있다. 로마법에 따라, 로마의 정치적 반란자로 처형된 자의 추종자는 같은 혐의로 체포될 수 있

32) 전계서, 눅 10:39.

33) 전계서, 요 8:2-3.

34) 원동희. (2008). “초기 기독교 문헌에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 전승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영신학대, p.24.

35) 한미라. (2002). 「여자가 성서를 읽을 때」, 대한기독교서회. p.172-173.

36) 전계서, 요 21:1; 11-13.

다. 십자가 자리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성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내걸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다.³⁷⁾ 또한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이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는 첫 번째 사람 중 하나였다(요 21:18).³⁸⁾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발견한 증인 중 하나로 그녀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그녀는 "부활의 사도"로도 불리며,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사도란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를 뜻하는 것으로 이는 수동적 의미를 가지는 단어이며 예수님과 관계성에 기인한다. 사도의 본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가서 증거하는 것이며, 진정한 사도는 부활의 증인이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예수님으로 부터 직접 부활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남성 제자들보다 예수님과 훨씬 더 깊은 관계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의 첫 목격자로서 소임을 다한다. 사도들을 위한 사도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³⁹⁾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전도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가려고 노력했던 충성스러운 여 제자였다. 이러한 견해에 비추어 볼 때 막달라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의 곁에서 봉사하는 평범한 일꾼이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그 무리의 지도자가 막달라 마리아임을 의미하는 이유는 유대관습상 사람의 이름을 나열할 때 가장 비중 있는 인물부터 순서대로 기록하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이다.⁴⁰⁾ 이러한 일들로 그녀의 역할과 사명을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고 이해되고 있다.

37) 엘리자베스 S. 피오렌자. (1986). 「크리스찬 기원의 여성 신학적 재건」. (김영애, 역). 서울: 종로서적, p388.

38) 전계서, 요 21:18.

39) 이성희. (1996), pp.34-35.

40) 상계서, pp.169-176.

Ⅲ 연구작품의 개요

3.1 안무의도 및 작품 내용

3.1.1 안무 의도

기독교 창작 무용 「The Healing」은 성서 속 막달라 마리아가 질병의 고통과 어둠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개하고, 그것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궁극적으로는 기쁨과 소망으로 향하는 구원의 길을 주제로 하고 있다. 현시대는 각종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병명도 알 수 없는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어둠속에 갇혀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에 들린 일종의 정신병에 해당하는 질병에 시달렸다. 정신병은 육체의 질병과는 달리 영적인 것에 속하며 인지, 지각, 사고, 감정, 기억 등의 이상 상태에서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모든 질환을 의미한다. 중세 때는 정신건강의 역사에서 암흑기로 그리스로마 시대에 등장한 정신질환에 대한 의학적 이해가 다시 억압되었다. 정신질환자를 사탄과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간주하여 비인도적 처우를 한 때도 있었다. 이와 같이 치유가 쉽지 않은 질병의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개하므로 치유 되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켜 본래 창조되었을 때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려는 것이었다(로마서8:29). 하나님께서는 삶의 완전성이 무너진 인간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담당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치유전과 후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예수님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전인적 치유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입은 것이다. 치유 받은 뒤 변화되어 회복의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가장 상세하게 묘사된 부분은(요한복음 20장)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나

타내신다. 그녀는 예수의 부활 소식을 사도들에게 알리기 위해 보내지고 이 때문에 그녀는 초기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사도들 중의 사도’로 불린다. 그녀는 일곱 귀신을 쫓아 내 준 예수님께 감사하여 고향을 떠나 동행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해질 당시 곁에 있던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 또한 예수님께서 무덤에 봉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부활하신 날 아침에 시신에 바를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찾아갔던 여성들 중 한사람이었다. 치유 받고 회복된 자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막달라 마리아의 치유되기 전과 후의 삶을 통해 치유의 중요성을 알게 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전인적 치유가 가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한다.

3.1.2 작품내용

o 1장: 어둠속에서

갈릴리 서쪽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는 일곱 귀신에 시달리며 질병의 고통과 어둠속에서 정신과 육체의 피폐 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표현했다. 오브제인 시든 꽃의 상징으로 탑 조명을 사용하여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무용수1의 얼굴 표정, 몸짓, 목소리 등을 통해 그의 억눌린 분노, 자책감, 불안감 등의 감정을 표현하여 막달라 마리아의 내면세계를 전달하려고 했다. 어둠속에서 인간 스스로 해결 할 수 없음을 깨달은 그녀는 눈물로 회개하므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되는 예표를 하기 위한 흰 천(세마포)을 사용하여 무용수1에게 무용수2와 3이 덮어주는 것으로 표현했다.

o 2장: 예수님과의 만남, 치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치유됨으로 그에 감사하며 그녀가 어둠속에 있을 때도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 이였음을 고백하는 표현의 장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중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의 음성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 빛의 조명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새

로운 삶으로 변화는 어둠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변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o 3장: 회복의 기쁨과 소망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후 치유 받은 그녀는 그의 제자 중 하나로 따르며 그의 가르침을 듣고 신앙을 깊게 받아들인다. 그 결과, 그녀의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질병의 고통과 어둠의 삶에서 자유를 얻고 회복의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감을 표현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많은 어려움과 심각한 영적 문제를 겪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면서 주어진 사명의 길을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간다. 오브제인 시든 꽃과 대조적으로 3장에서는 활짝 핀 흰 꽃을 순결의 상징으로 하였고 흰 꽃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천을 매어 관계성을 상징적으로 묘사했다. 무용수1,2,3은 치유된 자는 소망의 기쁨으로 나아감을 꽃 춤으로 표현하였다.

3.2 작품의 형식 및 구조

본 작품 「The Healing」은 총 3장으로 구성하였으며 무용 외에 연극적인 요소, 대사, 성악 등 다양한 요소를 조합하여 한 편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종합예술로서의 공연이다. 각 장의 주제에 따라 안무의 움직임으로 표현하였으며 음악의 전환, 영상, 무대조명으로 관객들에게 이해도를 높였다. 시든 꽃의 상징적 의미의 오브제를 사용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관객들에게 의도적인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탑 조명을 사용하였다. 예수님의 상징으로 흰 천(세마포)을 사용하여 나약한 인간을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 때 까지 함께 하심을 표현의 매체로 사용하였다. 무대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1,2장에서는 대사와 성악적인 요소로 효과를 기대했다. 음악은 각 장의 주제에 맞는 것으로 선택하여 1장에서는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선율과 특히 첼로의 애절함이 관객들에게 슬픔과 고통의 표현으로 사용하였다. 2장에서는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 중 “당신이었군요”의 가사의 내용으로 감동과 몽클함을 관객들에게 효과성을 기대하였고, 3장에서는 ‘아름다운 나라’로 국악과 서양악기의 조화로 밝고 경쾌함으로 표현하였으며 각 장마다 음악의 전환은 무대의 한

중요한 요소로 표현되었다.

[표 3-1]. 작품의 구조

구분	이미지	표현방법	시간
1장	오브제의 시든 꽃 강조한 탑 조명	대사: 내 몸과 영혼이 죽어 가고 있다 2번 반복	20초
	어둠속에서	주로 솔로 움직임과 영상	4분 30초
2장	예수님과의 만남, 치유	흰 천(세마포)은 예수님을 상 징으로 표현	3분 50초
3장	회복의 기쁨과 소망	3인무 꽃 춤으로 흰 꽃(치유 된 순결)과 흰 꽃에 매인 천 (예수님 보혈 상징)으로 관계 성 표현	3분 50초
	시편 30편 11-12절 말씀	음성으로 표현	23초
총 12분 53초			

3.3 작품의 구성요소 및 표현 매체

3.3.1 오브제



[그림 3-1] 오브제의 상징적 의미

오브제의 의미는 라틴어 ‘오브젝툼(Objectum)’이 어원이며 영어의 오브제(Objet)는 오브젝트(Object)와 같은 뜻으로서 ‘물체 또는 객체’를 의미하고 있다. 오브제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로는 대개 보이거나, 또는 만져지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 인식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들과 주제로서 인지할 수 있는 물질적이거나 또는 정신적인 것이다. 즉, 그것은 시각, 촉각, 청각 등의 감각을 통하여 인식할 수 있는 정신적인 모든 것을 포함한 대상들 혹은 객체라는 뜻을 갖고 있다.⁴¹⁾ 예술가에 있어서 오브제는 아무 관계가 없거나 또는 물건이나 혹은 그 어느 한 부분이 본래의 일상적 용도로부터 떼어내어져서 절연한 것으로, 보는 사람으로 잠재된 욕망과 환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상징적 기능의 물체이다.⁴²⁾

어떠한 일상적인 물체가 우연적이거나 필연적 효과에 따라 작품의 소재가 되어 적용될 때 그 본래의 용도나 성질, 기능의 의미를 잃고 새로운 상징을 가지고 예술작품화⁴³⁾된다. 무대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오브제는 극 공간에서의

41) 박찬국. (1995). 「현대미술의 기초개념」. 서울: 재원, p.182.

42) 박진양. (2022). “화에 설치작품의 오브제 활용 연구.” 박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p.7.

언어표현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감각 언어로 받아들여진다고 한다.⁴⁴⁾ 본 작품 「The Healing」에서 사용된 오브제는 시든 꽃이다. 막달라 마리아 한 영혼이 질병의 고통과 어둠에 갇힌 인간의 나약함을 표현하는데 상징적 의미로 쓰였다. 또한 마지막 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되어 회복의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활짝 핀 꽃과 대조적인 상징의 표현이다.

3.3.2 소품

소품은 무용의 미학을 장식하는 것으로 은은한 조명이나 가구 등을 들어 소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름다움의 측면이 부각할 수 있다. 또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공유 할 수 있으며 특정 소품은 감정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꽃과 같은 가벼운 소품은 기쁨, 우아함 그리고 낭만을 부각 시킬 수 있다. 본 작품 「The Healing」의 소품은 꽃과 흰 천(세마포)이 있다.

○ 꽃



[그림 3-2] 꽃

43) 이원우. (2000). “오브제 연출기법에 의한 패션디스플레이의 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p.25.

44) 김선주. (2013). “현대무용사에 나타난 오브제 사용의 의미.”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p.11.

활짝 핀 흰 꽃은 한 영혼이 죽어가는 시든 꽃 상징과 대조적 표현이다. 질병의 고통과 어둠속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회개의 깨끗함 상징인 흰색을 사용하였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치유 받아 새 생명의 얻은 의미로 예수님과의 관계성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붉은 천을 매어 사용하였다.

o 흰 천(세마포)

“안식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을 갈새 돌이 같이 달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높였고 또 머리를 찢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찢던 대로 놓여 있더라”⁴⁵⁾

막달라 마리아가 질병의 고통과 어둠속에 있었지만 눈물로 회개했을 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면에서 그녀를 두 천사 무용수 2,3이 예수님 상징의 흰 천(세마포)를 무용수 1에게 덮어 씌어주는 동작에서 사용하였다. 세마포(Linen)는 아마 섬유로 짠 제품을 말한다. 세마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베, 고운 베옷, 가는 베, 아마포’ 등으로도 번역되었다. 가는 베로는 제사장들의 속옷을 만들고 세마포로 제사장들의 두건과 빛난 관을 만들고 고의를 만들었다(출39:27-29). 이는 예수님의 시체를 찢던 천이었다(마27:29).⁴⁶⁾

3.3.3 의상

무대의상이란 살아있는 등장인물이 꾸미는 이야기(극)를 그 내용으로 구성하는 무대예술에 사용된다. 즉 연극, 무용(현대무용, 발레) 등 뮤지컬, 오페라, 음악극등과 같은 공연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계획되고 마련되는⁴⁷⁾ 것인데 본 작품의

45) 등불성경 개역개정판. (2019). 서울: 로렘서원, 요 20:1-7.

46) <https://good.tv.co.kr> '성경사진'.

의상은 무대예술 중, 무용의 의상으로 색채 이미지의 중점을 두었다. 막달라 마리아의 역 무용수 1의 의상은 연한 회색인데 상의는 질병의 고통과 어둠속 슬픔의 상황표현으로 절제된 색감으로 하였고 하의는 두 가지 색상을 착용하였는데 파랑색은 정화, 치유 흰색은 치유 받은 자의 순결, 자유, 희망의 이미지 색상으로 착용하였다. 무용수 2, 3의 상의 흰색은 순결, 자유, 희망의 색감으로 하의는 빨간색으로 어둠속에서 밝은 분위기의 기쁨으로 나아감을 뜻하는 의미로 착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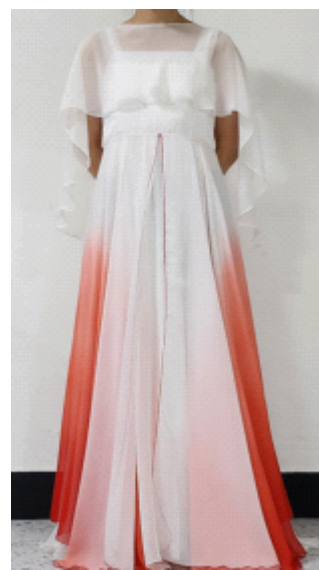
[표 3-2] 의상 구성

구분	배역	주조색
1	무용수 1	연한 회색, 파랑, 흰색
2	무용수 2, 3	흰색, 빨강



[그림 3-3]. 무용수 1 의상

- 상의(연한회색): 슬픔, 고통
- 하의(파란색): 치유, 정화
- 흰색: 자유, 희망, 순결



[그림 3-4]. 무용수 2, 3 의상

- 상의(흰색): 자유, 희망, 순결
- 하의(빨간색): 따뜻함, 에너지, 열정

47) 김현숙. (1995). 「무대의상 디자인의 세계」, 서울: 고려원, P.25.

3.3.4 음악

「The Healing」에서 사용된 음악은 총 3개의 음악과 소리가 사용되었다. 장마다 다른 성격의 장단조로 표현 되었으며 가장 대중적이고 한번 들으면 기억할 만한 음악으로 선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장마다 각각 독립된 음악을 사용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한편의 연극과 같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며 사용하였다. 박영애(2011)는 “음악이 지니는 정서적 이미지 및 심리적 반응은 생리적, 지적(知的)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은 그 음악을 처음 들을 때의 환경이나 상황, 또는 그 당시에 받았던 이미지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⁴⁸⁾라고 설명하였다. 무용에서의 음악은 관객들에게 기쁨과 슬픔 같은 다양한 상상을 무대 위의 무용수들과 서로 감정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기대했다.

1장에서 사용된 음악은 황상준이 작곡하고, 황상준, 신민이 편곡한 미인도 (Portrait of A Beauty, 2008) 中 “기다림” 이다. 바이올린, 비올라의 선율과 특히 첼로의 애절함이 관객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했다. 2장에 사용된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 “당신이었군요”는 성서 속 예수와 마리아의 관계를 마리아의 관점에서 풀어내었다. 질병의 고통과 어둠속에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깨달아 회개하므로 치유 받고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표현하였다. 3장에 사용된 음악 “아름다운 나라”⁴⁹⁾는 2007년 국악그룹 놀이터 앨범에 한태수 작곡의 “Fly To The Sky”로 처음 발표하였고, 2008년 소프라노 성악가인 신문희 (MOONY)앨범에 채정은이 작사를 붙이고, 노래 곡으로 한태수가 편곡하여 “아름다운 나라”로 다시 발표되었다.” 장구, 가야금, 대금, 피리, 징, 팽과리, 북, 태평소 등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어우러져 웅장함으로 밝은 분위기의 음악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간다는 이야기를 표현하는데 사용했다.

48) 박영애. (2011). “무용 요법에서의 음악사용.” 「대한 무용학회」, 70(1): p. 151.

49) <https://namu.wiki/w/아름다운%20나라>

3.3.5 영상

무용 영상의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무대를 단일에서 다원으로 변화시키고, 무용 영상도 보조적인 도구에서 무대화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가⁵⁰⁾ 되었는데 본 연구자는 1장에서 슬픔과 고통을 표현했고, 3장에서는 회복의 기쁨과 소망을 표현하는 영상을 통해 관객들에게 시각적으로 이해도를 높이는데 사용했다.

1장에서는 늦가을의 낙엽이 천천히 떨어지는 영상과 갈대가 바람에 쓰러질 듯한 영상으로 영혼이 시들어가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막달라 마리아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움직임과 어우러졌다. 3장에서는 몽우리에서 서서히 피어나는 장미꽃들과 일출의 해돋이 영상으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치유된 막달라 마리아가 회복되어 기쁨과 소망의 움직임 표현에 사용하였다.

3.3.6 조명

조명이란 무대 위에서 나타나는 빛의 효과로써 관객이 무대를 바라보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밝게 비추는 조명과 무대 분위기나 인물의 심리 등을 표현하기 위해 효과를 주는 조명과 무대표현을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한 조명으로 구분된다. 무대조명은 무대장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현수단⁵¹⁾이라 할 수 있는데 본 작품 「The Healing」에서의 조명은 작품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장면이 부각될 수 있어서 표현수단으로서 중요했다. 관객들이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강조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으며, 각 장마다 분위기와 전환점에 따른 표현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처음과 마지막부분에 오브제인 시든 꽃에 죽어가는 영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고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좁고 강도가 강한 두광(Top Light)을 사용하였다.

50) 장몽니. (2021).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무용과 영상의 융합과 구축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pp.30-31.

51) 김광요 외 4명 공저. (2010). 「드라마 사전」. 서울: 문예림, P.13.

1장에서는 블루 색채 칼라를 사용하여 막달라 마리아가 느린 비트의 음악에 따라 몸과 영혼이 죽어가는 움직임을 위해 사용했다. 또한 무용수의 움직임의 동선이 확장됨에 따라 조명도 서서히 부분적인 것로부터 전체적으로 페인팅 하였다.

2장에서는 역광(Back Top Light)을 USL에서 비추어 강조하였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또한 조도를 80%로 올리고 블루와 오렌지 칼라 조명을 사용하여 분위기 고조와 감정표현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3장에는 밝은 색채의 보라, 주황색 칼라 조명과 High Side Light를 사용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 치유되어 회복되는 장면을 최고조 밝은 분위기를 조성했다.

IV. 연구작품의 분석

4.1 장면 구성 및 움직임

무대 구분 구역은 [표 4-1]와 같다.

[표 4-1] 프로시니엄 무대(Proscenium Arch Stage) 구역 구분⁵²⁾

USR (Up Stage Right)	USC (Up Stage Center)	USL (Up Stage Left)
CSR (Center Stage Right)	CS (Center Stage)	CSL (Center Stage Left)
DSR (Down Stage Right)	DSC (Down Stage Center)	DSL (Down Stage Left)

아래의 [표 4-2]는 앞으로 나올 등장인물들의 동선에 방향과 오브제를 색으로 구분하였다.

[표 4-2] 기호 및 동선표지 색

등장인물	기호	동선표지 색
무용수 1		
무용수 2		
무용수 3		
성악가		
오브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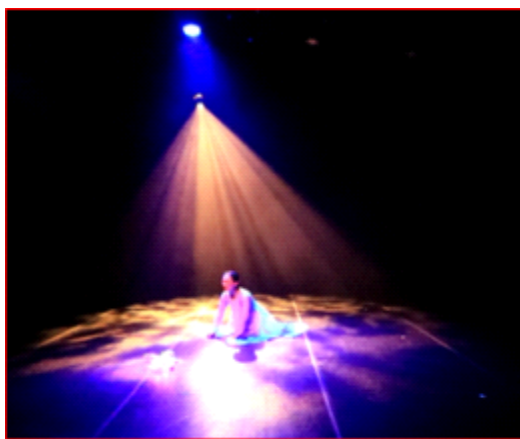
52) 김윤식. (2011). 「무대감독」. 서울: 연극과 인간, p.71.

4.2 1장: 어둠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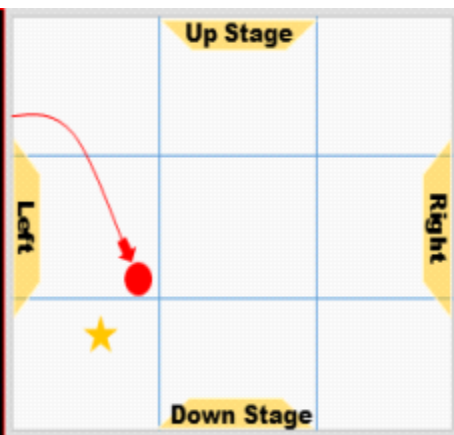
4.2.1 내용 및 안무 의도

기독교 창작 무용 「The Healing」은 암전 상태에서 조명이 들어오고 무용수1의 ‘내 몸과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대사와 함께 시작한다. 막달라 마리아가 질병의 고통과 어둠속에서 해매는 장면이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몸과 영혼이 죽어가며 창조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보지만 인간의 나약함으로 해결하지 못함을 알고 슬픔과 괴로움을 안은 채 걸어간다. 오브제인 시든 꽃이 한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인간이 어둠속에 있을 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했다. 어둠속에서 억눌려 갇혀 있던 무용수1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무용수2,3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흰 천(세마포)을 막달라 마리아 무용수1의 몸 위에 덮는 장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장면의 움직임 표현이다.

4.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그림 4-1]. (대사) 내 몸과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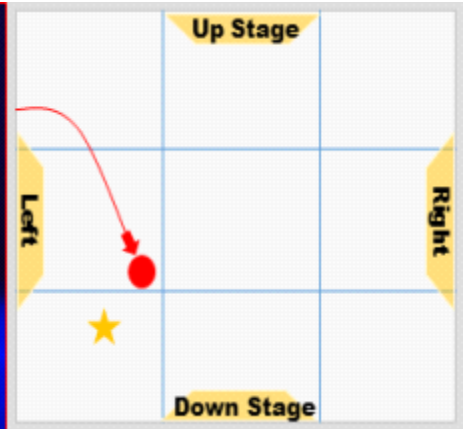


[그림 4-2]. 동선 1

Fade In과 동시에 [그림 4-1]의 장면에서 시든 꽃에 조명이 서서히 켜지면서 무용수 1이 무겁고 낮은 동작으로 엎드려 있다가 서서히 고개를 든다. “내 몸과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 대사를 하며 막달라 마리아의 영혼의 상태를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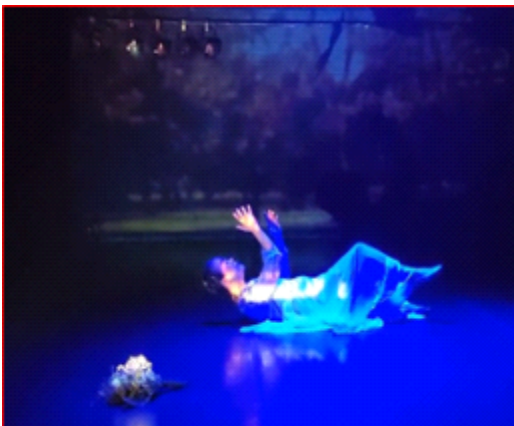


[그림 4-3]. 죽어가고 있는 영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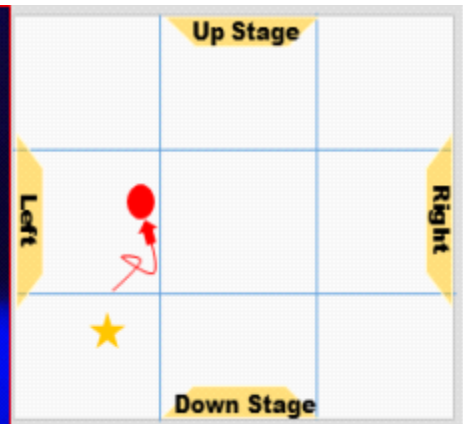


[그림 4-4]. 동선 2

[그림 4-3]의 그림은 서서히 죽어가는 영혼 표현으로 무용수 1의 소극적인 움직임으로 온 몸이 무겁고 자유하지 못한 움츠리는 듯한 동작과 괴로운 표정을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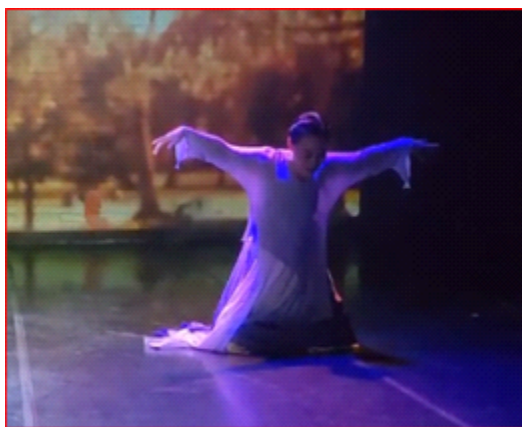


[그림 4-5].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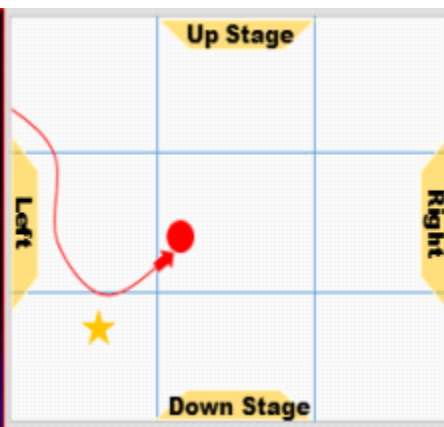


[그림 4-6]. 동선 3

[그림 4-5]에서는 인간의 본성인 극한 상황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함을 구하는 동작으로 처음엔 오른팔, 왼팔, 오른쪽 다리 순으로 들어 올리고 시선은 하늘을 향해 응시하여 더 절실함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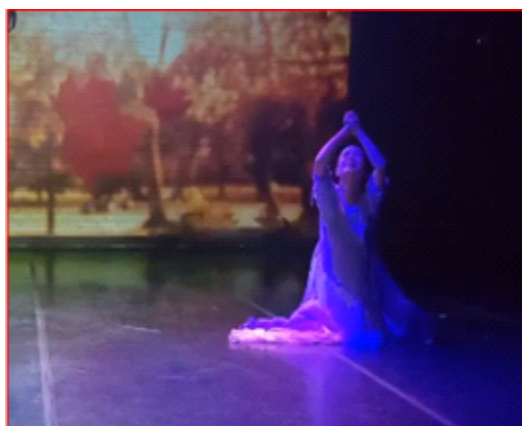


[그림 4-7]. 땅을 향해 내려놓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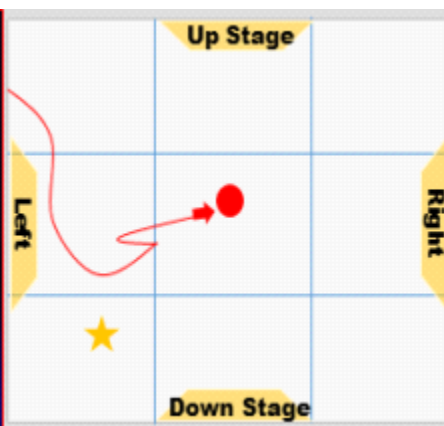


[그림 4-8]. 동선 4

[그림 4-7]장면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 힘든 상황표현으로 무용수 1이 여전히 무거운 동작으로 두 팔을 벌리고 시선은 땅을 향하는 움직임으로 불안하고 긴장된 마음을 내려놓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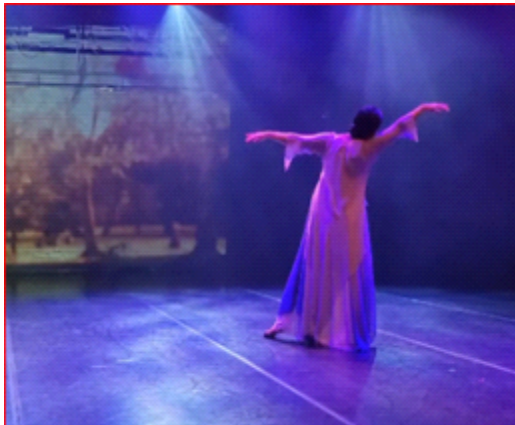


[그림 4-9]. 하늘을 향한 간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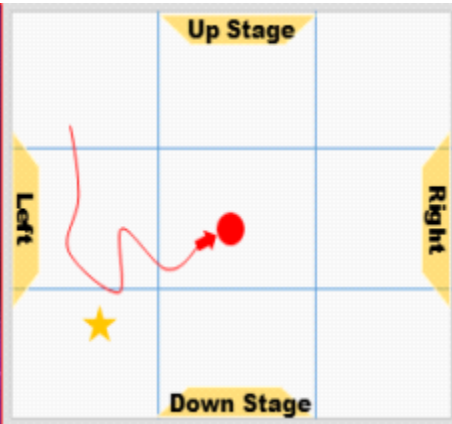


[그림 4-10]. 동선 5

[그림 4-9] 장면에서는 무용수 1이 시선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아 높이 들고 고통에 대한 절규의 표현이다. 인간은 고난 속에 있을 때 왜? 란 말을 하고 싶어 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땅과 하늘을 향한 장면은 이 땅에 메인 것이 풀리면 하늘에서 다 풀어주신다는 마태복음 18장 18-20절 성서에 근거하여 움직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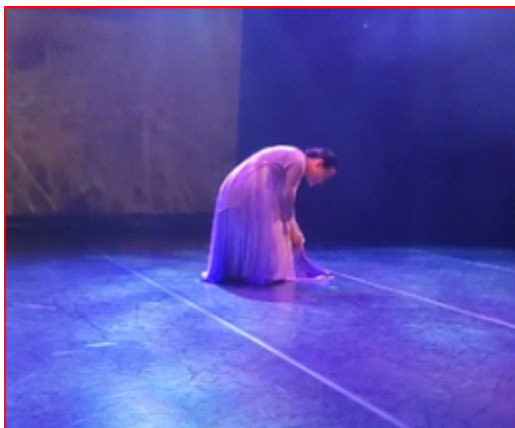


[그림 4-11]. 몸을 팔에 기댈 정도의 괴로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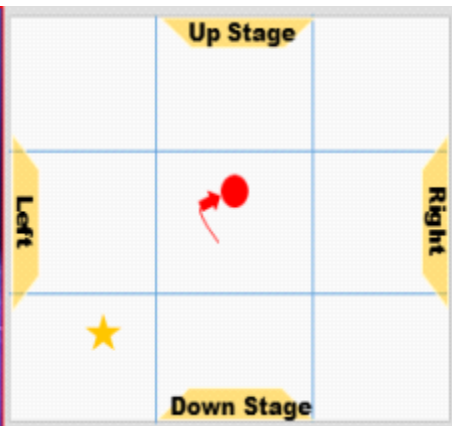


[그림 4-12]. 동선 6

[그림 4-11]의 장면에서는 무용수 1의 움직임이 몸을 축 늘어뜨린 채 몸을 팔에 기대는 동작으로 어디 기댈 곳이 없이 무기력함 그 자체를 표현하였다.



[그림 4-13]. 다리를 의지하여 기댈 정도의 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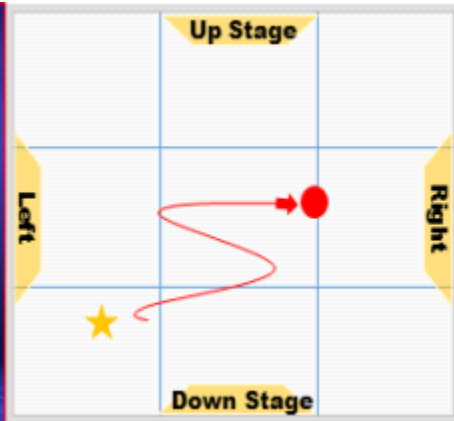


[그림 4-14]. 동선 7

[그림 4-13] 장면에서 보이듯이 어둠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절실함의 표현을 무용수 1이 무겁고 낮은 자세와 시선으로 다리를 의지하여 천천히 끌어 올리는 움직임으로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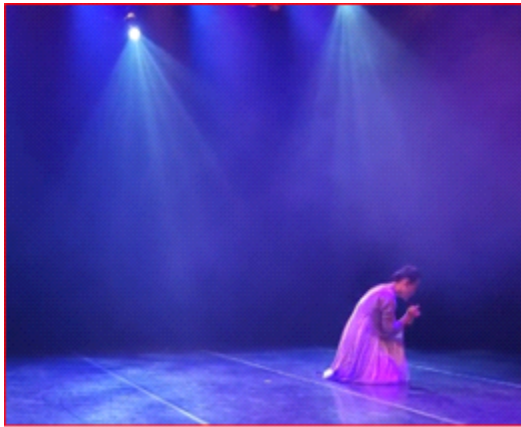
[그림 4-15]. 죄를 자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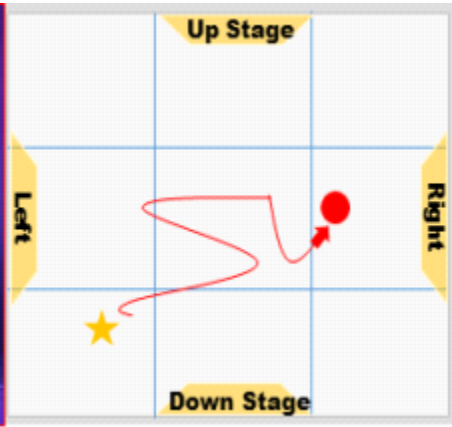
[그림 4-16]. 동선 8

힘없고 나약한 인간은 죄와 질병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깨닫게 되는 순간 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된다.

[그림 4-15]장면에서 무용수 1이 머리와 시선은 땅을 향하여 죄인 된 심리상태를 나타내 주었으며 두 손 모아 두 팔을 하늘을 향한 동작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는 표현이다.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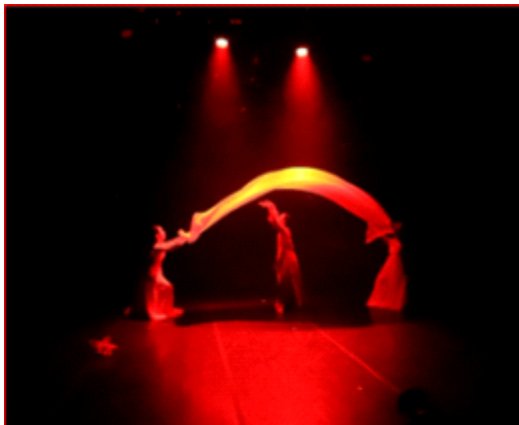


[그림 4-17]. 회개의 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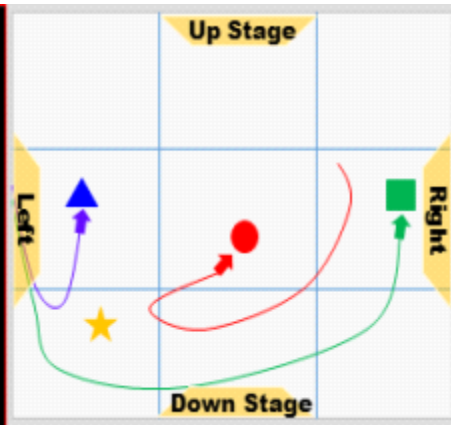


[그림 4-18]. 동선 9

[그림4-17]에서 보이듯이 무용수 1이 낮은 자세로 웅크리고 앉아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동작과 얼굴 표정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장면이다. 자복하고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질병까지도 치유해 주시는데 그 일을 담당하시는 분은 전인적 치유를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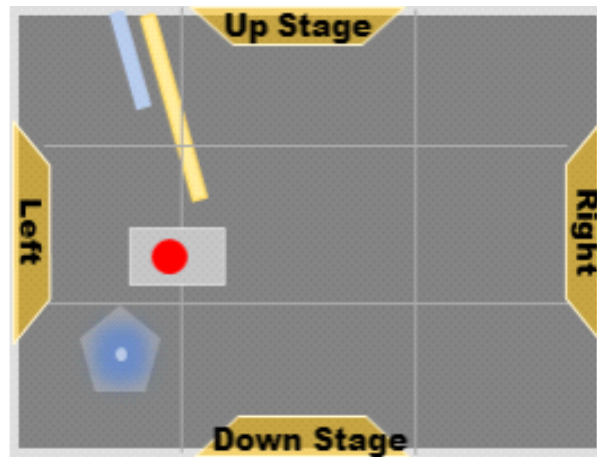
[그림 4-19]. 흰 천(세마포), 예수님



[그림 4-20]. 동선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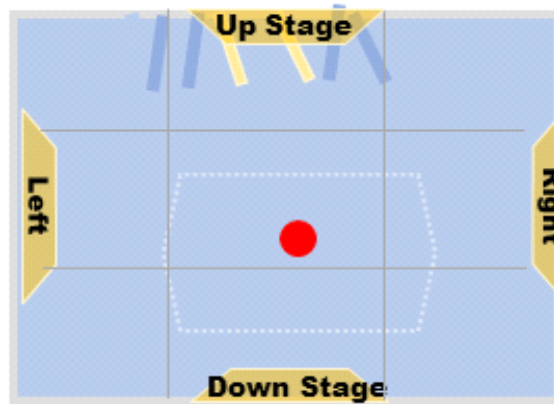
[그림4-19] 장면에서는 어둠속에 있었던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한다. 무용수 1에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흰 천(세마포)을 천사 무용수 1, 2가 등장하여 천을 덮어 씌워주는 움직임의 형태다.

4.2.3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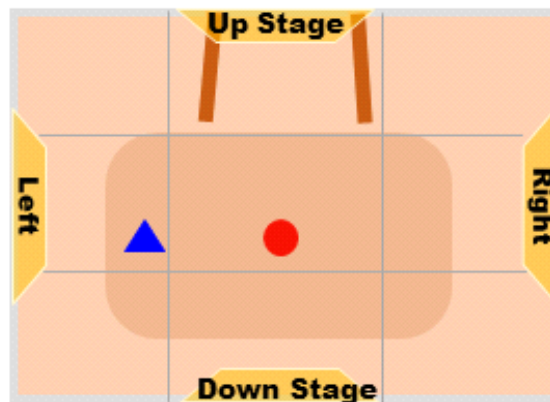
[그림 4-21] 조명 1

[그림 4-21]의 조명에서는 암전 상태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상징하는 시든 꽃에 좁고 강도가 강한 두광(Top Light)을 사용하여 관객들에게 의도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슬프고 괴로운 무용수 1의 감정 표현에 블루칼라 색채 조명을 사용했다. Back Wash와 Back Gobo를 사용하여 무용수 1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용 목적이 있다.



[그림 4-22]. 조명 2

[그림 4-22]조명은 무용수 1의 동선이 앞쪽 상수에서 센터로 확장된 동선의 움직임에 따라 Back Wash를 사용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페인팅 하였다.



[그림 4-23]. 조명 3

[그림 4-23]조명에서는 어둠속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장면으로 예수님의 보혈 상징인 흰 천(세마포)을 붉은 천의 이미지로 변환 하기 위해 레드 색채의 탑 조명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페인팅 하였다.

4.2.4 음악

1장의 사용된 음악으로 황상준이 작곡하고, 황상준, 신민이 편곡한 미인도 중에 “기다림”이다. 몸과 영혼이 죽어가는 상황을 음악의 효과로 나타내기 위하여 느린 비트로 3분 22초 까지 사용하였다. 죄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기위해 3분 22초부터 잔잔하게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군데군데 북소리를 삽입하였으며 4분 6초부터 4분 27초 까지 빠른 비트의 북소리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는 장면의 긴박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했다. 특히 음색이 뛰어난 찰현 악기 바이올린과 콘트라베이스로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과 고통의 상태를 물들이고 애절한 울림의 절규를 음원으로 구성하여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하였다. 비올라의 선율과 특히 첼로의 애절함이 동작의 언어와 간절한 무용수의 감정표현으로 어우러지며 관객들에게도 전달되기를 기대했다.

4.2.5 영상

1장에서 영상은 막달라 마리아가 어둠속에서 죽어가는 영혼 움직임의 이해도를 높여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두 개의 영상을 사용했다.

첫 번째는 늦가을의 나뭇잎이 천천히 한잎 두잎 떨어지는 영상을 사용하여 느린 비트의 음악과 무용수 1의 슬픔에 싸인 움직임의 시각적 도움을 주기 위한 영상이다. 두 번째 영상은 늦가을 넓은 갈대밭에 황금색을 띤 갈대가 바람의 상태에 따라 쓰러질듯 하다가도 멈추기도 하고를 반복하며 인간의 나약한 심리 상태를 보여주었으며 무용수 1의 고통의 움직임 표현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4.3 2장 : 예수님과과의 만남, 치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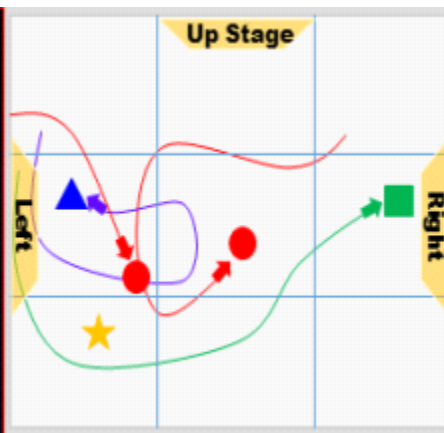
4.3.1 내용 및 안무 의도

질병의 고통과 어둠속에 갇혀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개하므로 치유 받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변화의 과정을 2장에서 담고 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음성은 ‘마리아야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라는 대사가 곧 마리아에게는 병 고침의 치유를 대신하고 있다. 죄와 질병으로 온 통 상처가 있는 자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분이 주님이심을 그녀는 고백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구원의 은총의 은혜가 있다. 어둡고 슬픈 무거운 장면의 1장과는 좀 대조적으로 서서히 치유된 자의 기쁨을 표정과 몸짓으로 표현하였으며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했다.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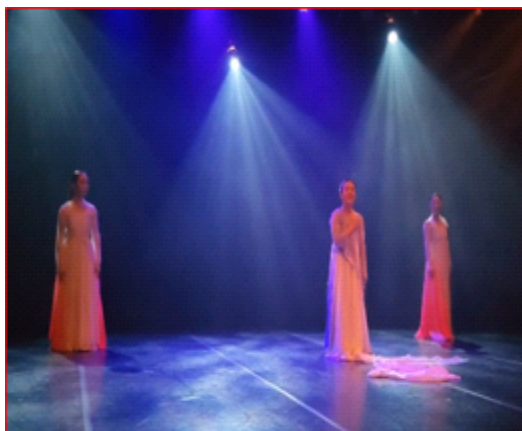
[그림 4-24]. 하나님의 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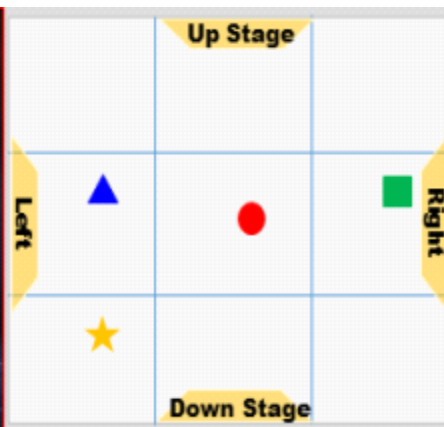
[그림 4-25]. 동선11

[그림 4-24]의 장면에서 보이듯이 무용수 1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 빛의 조명을 사용하여 표현하였으며 “마리아야 마리아야 무서워

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은 막달라 마리아를 치유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중적으로 강조한 표현이다. 무용수 1이 예수님의 빛과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시선을 돌려 연극적 감정표현을 하였으며 무용수 2, 3의 천사는 무용수 1의 뒷 사선 방향으로 서서 지켜보고 있다.



[그림 4-26]. 치유해준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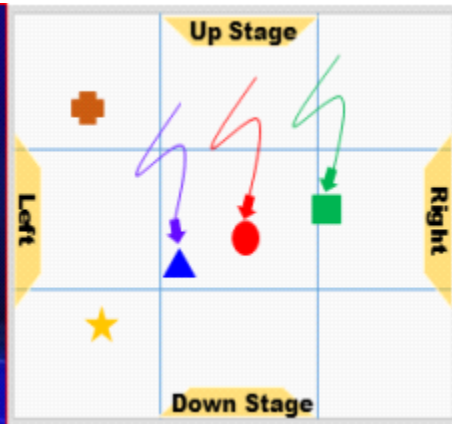


[그림 4-27]. 동선 12

[그림 4-26]장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의 장면이다. 죽어가는 영혼이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지켜주시고 기도해주셨던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무용수 1의 대사“ 주여 주여 오!나의 주여 찢겨진 나의 상처를 닦아주신 분이 주님이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주님의 음성에 화답하고 있다. 무용수 2, 3의 등장으로 동선이 확장되고 무대의 공간구성에서 풍성함이 있어 슬프고 외로운 1장과 대조적으로 위로와 따뜻함이 느껴진다.



[그림 4-28]. 공허함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고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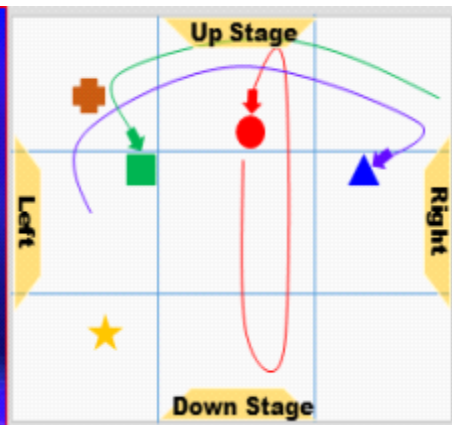


[그림 4-29]. 동선 13

[그림 4-28] 장면에서는 성악가의 출연으로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 중 “당신이었군요”의 가사 “내가 공허함 속에서 헤맬 때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을 때 날 위해 기도하고 계셨군요”에 맞춰 무용수 1,2,3이 예수님의 상징인 흰 천(세마포)을 높이 들고 고백하는 움직임의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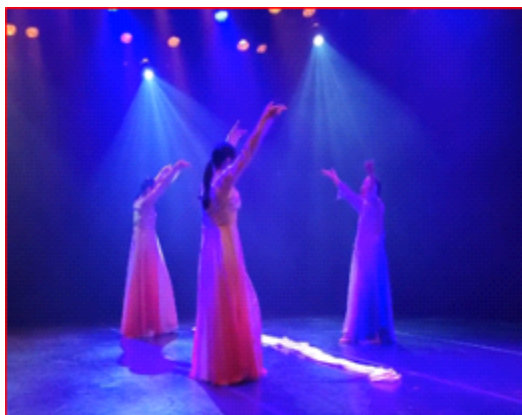
[그림 4-30]. 늘 기도해 주셨던
분이 주님이심 고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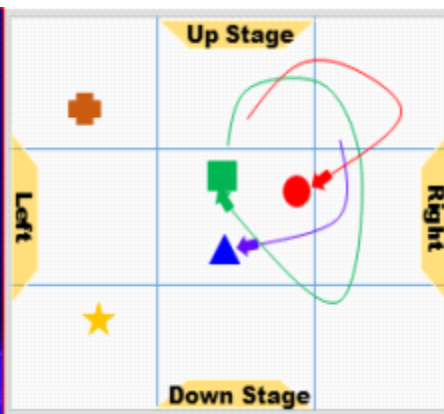
[그림 4-31]. 동선 14

[그림 4-30] 장면에서 보이듯이 성악가는 무대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직접 노래를 하는 다양한 구성을 연출하였다. 늘 지켜보고 계시고 기도해 주

섰던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으로 무용수 1,2,3이 두 손 모아 흰 천(세마포)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과 연합의 의미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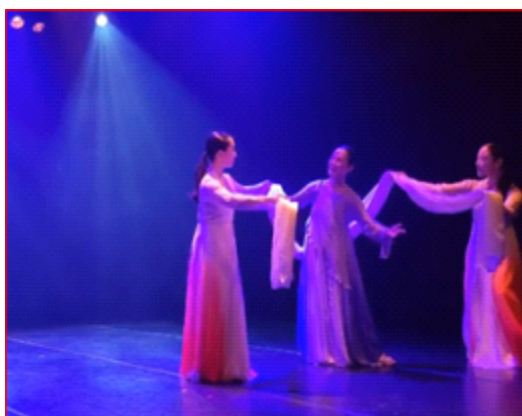


[그림 4-32].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경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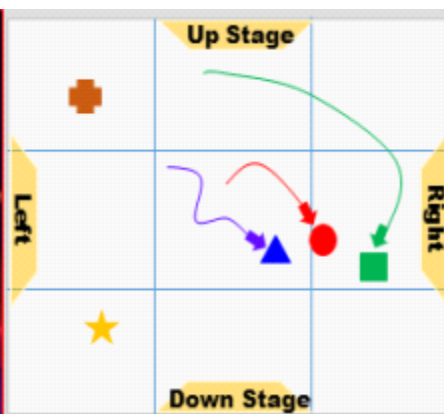


[그림 4-33]. 동선 15

[그림4-32]의 장면은 예수님의 상징인 흰 천(세마포)을 향해 경배하는 동작으로 표현하였다. 무용수 1,2,3이 흰 천(세마포)을 하늘을 향해 높이 경배하고 땅에 내려놓고 다시 두 손을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였다.



[그림 4-34]. 늘 보호해 주신 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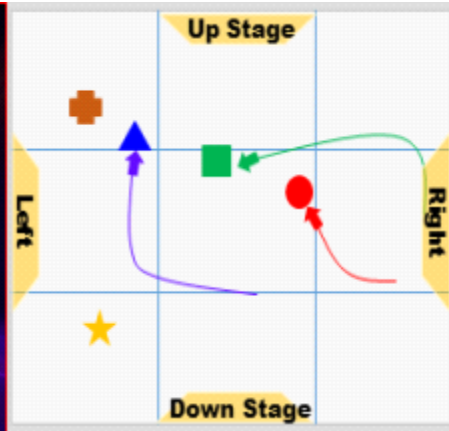


[그림 4-35]. 동선 16

[그림 4-34] 장면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속에서 있을 때도 늘 함께 계셨지만 앞으로는 늘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는 동작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흰 천(세마포)을 무용수 1에게 무용수 2,3이 감싸는 움직임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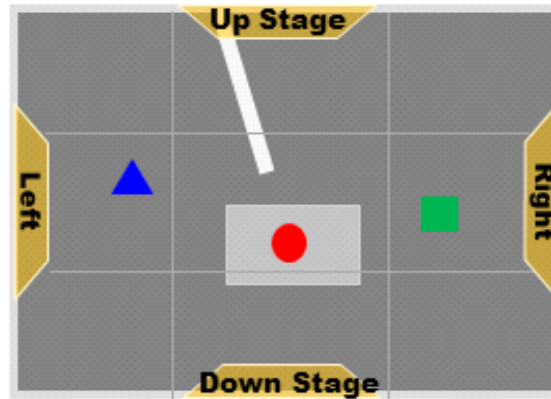
[그림 4-36]. 세상 끝날 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림 4-37]. 동선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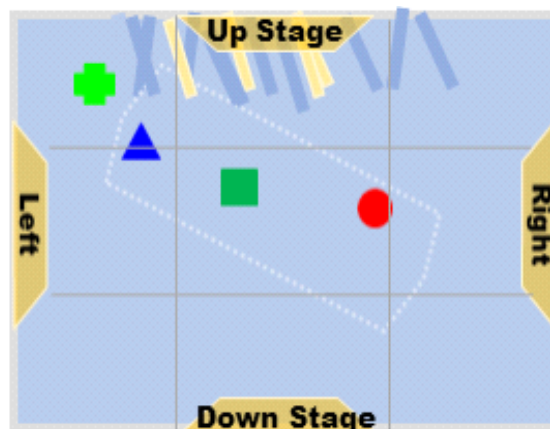
[그림 4-36] 장면은 예수님 상징인 흰 천(세마포)이 서서히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서 멀어지는 장면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눈에는 안보이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성서에 근거한 의미의 동작으로 표현하였다.

4.3.3 조명



[그림 4-38]. 조명4

[그림 4-38] 조명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동시에 USL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상징을 표현하기 위해 강한 빛의 화이트칼라 Back Top Light을 사용하였다.



[그림 4-39]. 조명 5

[그림 4-39] 조명은 예수님과 만남 후 고조되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조도 밝기를 80%로 올렸으며 Back Wash (블루칼라), Back Gobo (문양)을 사용하였다.

4.3.4 음악

2장에서 사용된 음악은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 중 “당신이었군요” AR과 중간 부분에는 성악가의 출연으로 현장감을 살렸다. 이 뮤지컬의 음악은 성서 속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치유 받고 나서 그녀의 찢겨진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어둠에 있을 때에는 늘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감사의 마음을 음악으로 담고 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마리아의 관점에서 잘 풀어내준 음악이어서 선택하였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신디사이저 효과음(드럼 셋)이 들어가서 잔잔함과 최고조의 장면을 표현할 때 악기의 구성이 잘 어우러져 음악의 효과성을 높였다.

◦ “당신이었군요”

“당신이었군요. 찢어진 내 몸 위해 눈물 흘린 사람이
당신이었군요. 피 흘리는 나의 상처를 닦아준 사람이
내가 공허함 속에서 헤맬 때 날 향해 있었던 눈길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을 때 날 위해 기도하고 계셨군요.
당신이었군요. 찢어진 내 몸 위해 눈물 흘린 사람이
당신이었군요. 피 흘리는 나의 상처 닦아준 분이
당신이었군요. 그 어둠속을 빠져나와 이제야 우리 만났군요.”

4.4 3장: 회복의 기쁨과 소망

4.4.1 내용 및 안무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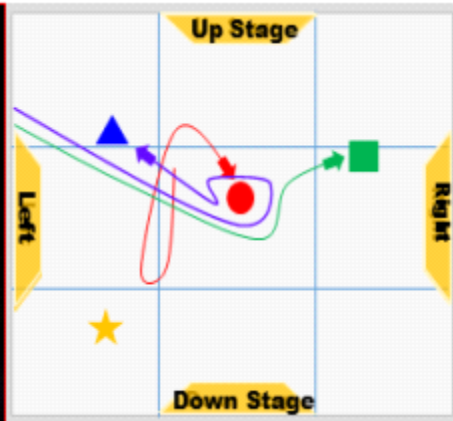
3장에서는 예수님과 만남 후 치유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로 따르며 그의 가르침을 듣고 신앙을 깊게 받아들인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녀의 삶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전인적 치유를 받았다. 그 결과 어둡고 고통스런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회복의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간다. 오브제

인 시든 꽃 상징인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기쁨과 소망의 밝은 꽃 춤으로 표현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장으로 구성하였다.

4.4.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그림 4-40]. 흰 꽃(순결), 흰 꽃에 매인 붉은 천(예수님 보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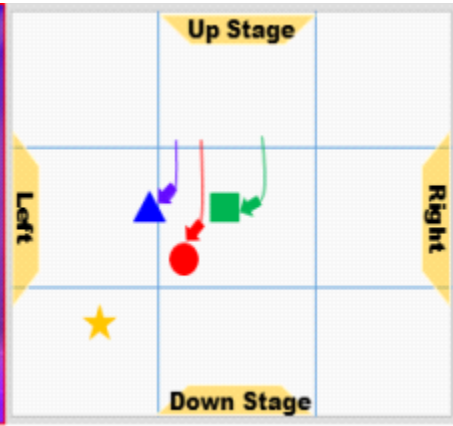


[그림 4-41]. 동선 18

[그림 4-40] 장면에서 보이듯이 무용수 1에게 무용수 2,3이 양쪽 손에 꽃을 주어 힘차게 앞으로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장면으로 구성하였으며 막달라 마리아가 질병의 고통과 어둠속에 있었지만 치유 받고 회복된 순결의 상징인 흰 꽃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붉은 천을 매어 상징적으로 관계성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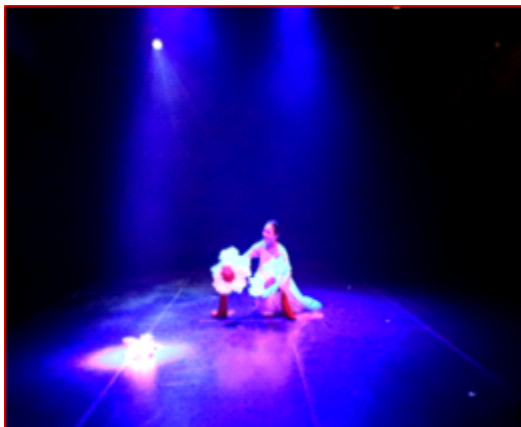


[그림 4-42]. 치유와 회복의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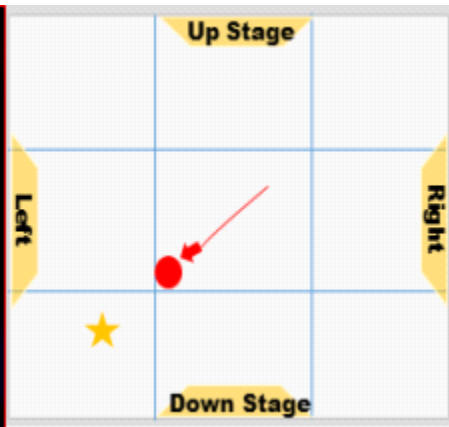


[그림 4-43]. 동선 19

[그림 4-42]장면은 다시 기쁨과 소망의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장면으로 무용수 1,2,3 의 밝은 표정으로 표현했다. 3장의 시작부터는 활발한 움직임과 넓은 동선을 사용하여 회복되는 상황들의 장면을 구성하였다.



[그림 4-44]. 오브제의 상징, 시든 꽃 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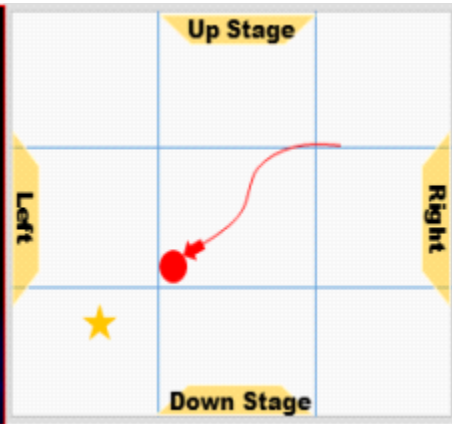


[그림 4-45]. 동선 20

[그림 4-44]에 보이듯이 죽어가는 영혼을 상징하는 처음장면의 시든 꽃을 회상하는 장면으로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바라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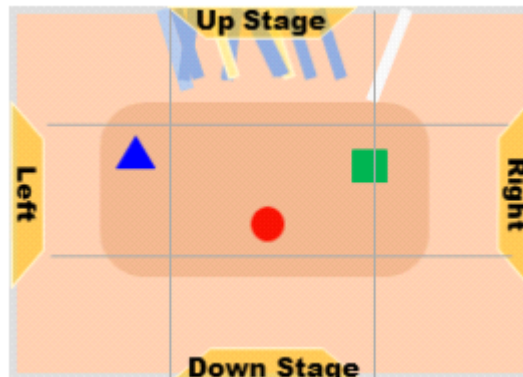
[그림 4-46].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림 4-47]. 동선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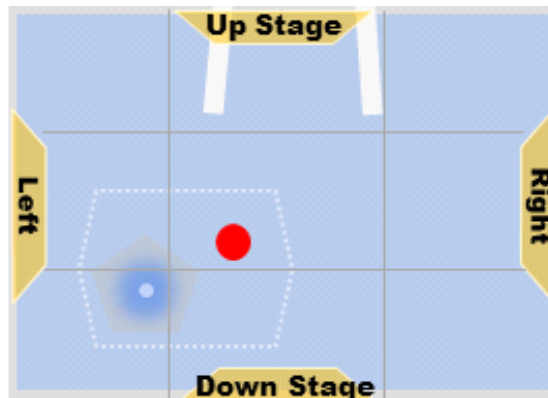
마지막 장면으로 [그림 4-46]은 죽어 가던 영혼이 새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 드린다는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시편 30편 11-12 절의 말씀의 음성이 나오며 꽃과 시선을 하늘을 향해 감사의 표현을 하였다.

4.4.3 조명



[그림 4-48]. 조명 6

[그림 4-48] 조명은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 Back LED Wash 보라, 주황색 칼라를 사용하였으며 High Side Light를 사용하였다.



[그림 4-49]. 조명 7

[그림 4-49] 조명은 Back LED Wash (블루칼라)를 사용하여 처음에 슬픔과 고통의 장면을 회상케 하였다.

4.4.4 음악

3장에서 사용된 음악의 제목은 “아름다운 나라”로 2007년 국악그룹 놀이터 앨범에 한태수 작곡의 “Fly To The Sky”로 처음 발표하였고, 한태수가 다시 편곡하여 발표한 음악으로 장구, 가야금, 대금, 피리, 징, 팽과리 북, 태평소의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어우러져 조화를 이룬 웅장한 사운드와 영상미의 음악이다. 1장과 2장에서 감성적이고 잔잔한 비트와 대조적으로 회복의 기쁨과 소망을 마지막 절정의 부분을 빠른 비트로 사용하였다.

4.4.5 영상

3장에서 영상은 두 가지로 사용하였으며 막달라 마리아가 치유된 자로서 새 생명을 얻어 회복된 기쁨의 표현을 하기 위해 장미꽃이 봉오리에서 활짝 피는 영상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 영상은 바닷가에 해돋이 일출 영상으로 다시 떠오르는 희망을 표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V. 결 론

본 논문은 기독교 창작 무용 「The Healing」에 대한 연구이다.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PM 7:00에 양재동 M극장에서 공연하였고 기독교적 치유를 주제로 표현한 기독교 창작 무용 작품 「The Healing」을 분석한 논문이다. 본 연구자는 평소 본인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간증을 무대화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복음으로 사용되어 지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이번 졸업 작품을 준비하면서 성서 속에서 인물을 찾던 중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을 선정하고 다양한 장르로 구성하여 준비하였다. “또한 악귀를 쫓아 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눅 8:2) 성서 말씀에 근거하면 막달라 마리아의 질병은 정신병의 일종이다. 현대의학으로는 치유되기 쉽지 않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 받았다. 본 연구자 또한 과거에 그녀와 동일한 질병으로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치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본 작품 장면 구성은 1장, 2장, 3장순으로 과정을 진행하였고 무용 외에 연극적 요소, 대사, 성악 등 다양성을 추구하여 이야기를 전개하는 종합예술로서의 공연을 시도하였다. 뮤지컬의 성격을 띤 공연을 시도했지만 구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실제 공연 준비를 해 보니 생각과 현실은 큰 차이가 있었다. 준비하는 과정마다 어려움과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고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본 작품의 주제는 막달라 마리아는 질병의 고통과 어둠속에 있었지만 회개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얻어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찾는다는 것이다. 치유란 고침 받고 회복되어 온전하여 짐을 뜻하는데 진정으로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말씀하고 계신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먼저 회개를 말씀하셨는데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본 작품의 인물 막달

라 마리아 또한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 치유 받기 전과 후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치유 받고 회복의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가장 상세하게 묘사된 부분은 요한복음 20장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내신다.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사도들에게 알리기 위해 보내지고 이 때문에 그녀는 초기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사도들 중의 사도’로 불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성서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이와 같이 그녀는 예수님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치유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입은 것은 그 일을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적 치유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히 13:8)라는 성서의 기록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우리 주변에도 종종 찾아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막달라 마리아의 치유를 표현하고 있지만 본 연구자도 현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치유 받은 경험을 병 고침에 끝나지 않고 그 현장의 증인으로써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물질만능과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겨나지만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으로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고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러한 삶이 땅 끝까지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지켜 행하는 복음적 통로로 사용되어지를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오늘날에 질병의 고통과 어둠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 받고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김광요 외 4명 공저. (2010). 「드라마 사전」. 서울: 문예림
- 강덕구. (2012).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사역 연구”. 충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명숙. (2000). “무용요법이 정신분열증 환자의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논문집. 제1권
- 김선주. (2013). “현대무용사에 나타난 오브제 사용의 의미”.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식. (2011). 「무대감독」. 서울: 연극과 인간
- 김준환. (2022). “연극 무대의 영상 활용 유형 분석 및 사례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연극학과 연극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현숙. (1995). 「무대의상 디자인의 세계」. 서울: 고려원
- 박영애. (2023). 「기독교 무용을 위한 실제」. 서울: (주)내일이비즈
- 박영애. (2011). 무용 요법에서의 음악사용. 「대한 무용학회」
- 박진양. (2022). “화에 설치작품의 오브제 활용 연구”. 수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찬국. (1995). 「현대미술의 기초개념」. 서울: 재원
- 원동희. (2008). “초기 기독교 문헌에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 전승연구”. 한영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호. (1983). 「성구대사전」. 서울: 해문사
- 이성희. (1996). 「예수님을 만난 여성들」. 서울: 두란노
- 이원우. (2000). “오브제 연출기법에 의한 패션디스플레이의 방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찬수. (2013). 「처음마음」. 서울: 규장
- 엘리자베스 S.피오렌자. (1986). 「크리스찬 기원의 여성 신학적 재건」. (김영애, 역). 서울: 종로서적
- 장몽니. (2021).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무용과 영상의 융합과 구축에 대한 연

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잭 피니건. (1998). 「신약 성서의 고고학」. (남대극, 역). 서울: 민음사

최영실. (1996).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 기독교 사상. 40권 7호

한미라. (2002). 「여자가 성서를 읽을 때」. 대한기독교서회

하혜승. (2010). “영지주의 문헌들에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상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기타

라이프성경사전. <https://m.blog.naver.com/yejihanja/220803993539>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1998). 서울: 대한성서공회

<https://blog.naver.com/holyserv/1400551346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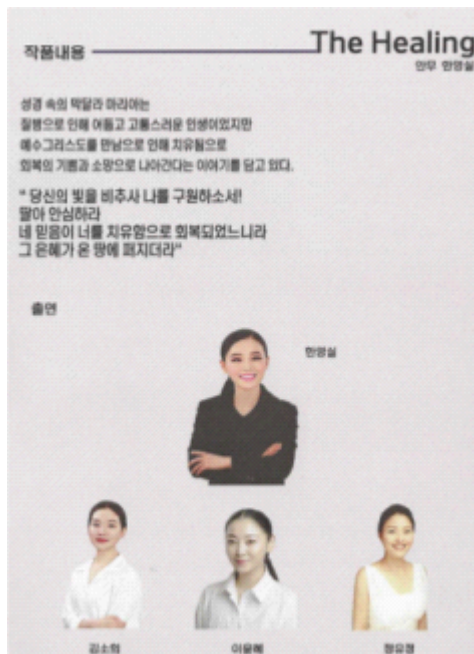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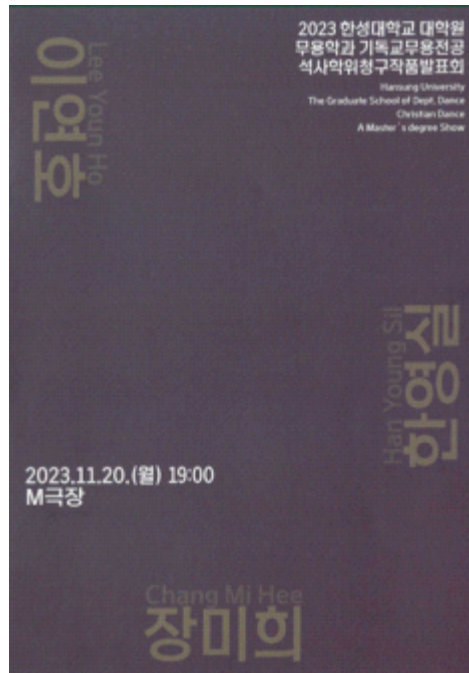
<https://goodtv.co.kr> '성경사전'

부 록

1. 공연 프로그램 요약

작품명	「The Healing」
일시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오후 7시
장소	양재동 M 극장
안무	한 영 실
음악	• 미인도(Portrait of A Beauty, 2008) 中 “기다림” •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 中 “당신이었군요” • “아름다운 나라(Fly To The Sky)”
출연	한영실, 이윤희, 김소희, 정유정
영상연출	박 성 민
조명감독	장 재 익
사진영상	이 영 욱
주최	한성대학교
소요시간	12분 53초

2. 공연 프로그램



ABSTRACT

A Study on the Christian Creative Dance 「The Healing」

Han, Young-Sil

Major in Christian Dance

Dept. of Da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Christian creative dance 「The Healing」. It was performed at M Theater in Yangjae-dong at 7:00 PM on Monday, November 20, 2023. This study analyzes the Christian dance work “The Healing” which expresses the theme of Christian healing.

This researcher has prepared a variety of genres to stage the basis of life and experience and hopes to use it as gospel.

2,000 years ago, Mary Magdalene in the Bible was a type of mental illness and although she was in pain and darkness, she realized human weakness, repented in tears, met Jesus Christ was healed, and was an important figure who brought about new changes. This researcher also discovered that although she had suffered for a long time due to the same disease in her current age she was healed through Jesus Christ and was living a new second life. In the choreography and movement

composition of the work, I prepared the work with the hope that the experiences of the pain and suffering I felt in my past life would be well expressed through emotional expression.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studied the healing ministry of Jesus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life of Mary Magdalene as defined in the Bible. In addition,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performance videos, and literature research was also included.

The Christian creative dance work 「The Healing」 recognizes that a soul lives in the darkness of disease and pain, but cannot be resolved through human weakness, and expresses returning to the original human posture. Let us know that when we surrender everything to God who created humans and repent, healing can be possible through Jesus Christ, who is in charge of healing the whole person physically, mentally, and spiritually.

This work consists of a total of three parts and is a performance piece expressed as a comprehensive art that combines various elements such as theatrical elements, dialogue, and vocal music in addition to dance. In addition, video media was used to enhance the audience's understanding of the stage lighting and dancers' situations to create transitions and atmosphere in the music and to indicate emphasis whenever the scene changed. At the beginning of Chapter 1, the lighting of the object, the tower of withered flowers, and the dancer's line, "My body and soul are dying," increased the audience's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and focused their attention. The pain of Mary Magdalene and her wandering in the darkness were expressed through the dancer's heavy and low posture movements and sad and painful facial expressions. In Chapter 2, Mary Magdalene tries to escape from the darkness, but learns the limitations of a weak human being. The process of being healed and changed through Jesus through tears of repentance was expressed by

symbolizing Jesus with white cloth(fine linen) and the light of the tower lights. The last chapter, Chapter 3, contains the comprehensive meaning of the healed Mary Magdalene recovering and moving forward with joy and hope. Images of fully bloomed flowers(joy) and sunrise(hope) were used, and contrasting situations were expressed with withered flowers and fully bloomed flowers. This researcher hopes to help many people today who are going through times of illness and pain to live a life of restored joy and hope by being healed by the love and grace of Jesus Christ.

【Key words】 Christian Creative Dance, Pain, Repentance, Healing, Hope, Salvation.